

2019. 6. 2.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사도 1,11)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님 승천 성당 - 주님승천지
교구 가톨릭사건회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 루카 24,46-53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화와 공동선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과 함께!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막강한 위력이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은 물론 신앙행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미디어가 공공성보다 대중의 흥미에 영합합니다. 시장 논리를 따르며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생각할 거리를 제작하기보다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미디어가 복음화와 공동선 실현을 위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종교방송 매체로서, 복음화를 위해, 선교프로그램(오후 2시,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체험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기쁜 소식(福音)'의 가치를, 인기순위나 관심도나 청취율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소통 매체로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 시사프로그램(오후 5시,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상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픈 우리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이 겪는 갈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진실하게 보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3차 홍보주일이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3주년일입니다.

이 기회에,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후원회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온갖 미디어의 난립과 안팎으로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중단 없이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취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듣는 라디오'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방송국 SNS계정을 통해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듣는' 라디오방송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박하게나마 '보는'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오늘도 복음화와 공동선 실현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과 함께!



장세현 미카엘 신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고전주의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Die Schöpfung 디 쉐퐁’

음악사에서 고전주의는 대략 1750년에서 1820년 사이를 말합니다. ‘고전주의’란 문학, 예술, 음악에서 조화, 균형, 명석함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예술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조입니다. ‘고전 음악(클래식 음악)’은 일반적으로 재즈, 록, 대중음악과 구분하여 유럽 예술음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전주의의 대표 작곡가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오스트리아 빈 Wien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빈 고전주의라고도 합니다.



아담의 창조 로마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1511년, 미켈란젤로 작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Franz Joseph Haydn* (1732-1809)은 오스트리아 로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은 많은 교향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교향곡’은 그리스어로 ‘심포니아 *Symphonia*’ 즉, ‘함께 소리가 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포니’라고도 하며, 흔히 관현악단을 위한 음악을 뜻합니다. 하이든은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4중주곡(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등을 작곡하여 고전주의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말년에는 미사곡과 오라토리오 등 교회음악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천지창조>입니다. 하이든은 이 곡을, 헨델의 <메시아> ‘알렐루야’ 합창 연주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 작곡했다고 합니다. 약 3년에 걸쳐 완성된 <천지창조>는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하여 대본가 슈비텐이 독일어로 각색한 것에 음악을 붙인 것입니다. 전체 33곡이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서곡을 포함해서 13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채가 풍부한 오케스트라로 시작하는 서곡은 혼돈을 묘사합니다. 나머지 13곡은 천지창조의 처음 4일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와 빛, 물, 산 등의 자연을 창조하는 과정을 주요 등장인물인 세 대천사들을 통해 노래합니다.

제2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려라!’와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등의 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동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다룬 제5일과 제6일의 이야기로 물고기, 새, 사자, 호랑이 등 각종 동물의 특성을 익살스럽고 역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제3부는 에덴동산의 송고한 정경을 배경으로 에덴동산에서의 삶을 노래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야기와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이중창 ‘오, 내 사랑 그대 있으면’은 순수한 사랑의 극치를 표현합니다. ‘만민들아, 주님께 노래 불러라’의 합창과 4중창(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으로 장엄하게 시작하여 힘찬 아멘의 절창으로 곡이 마무리됩니다.

1808년 3월 27일, 빈에서 이 작품이 상연되었을 때, 하이든에게 찬사를 바치기 위해 음악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베토벤도 있었습니다. 제1부가 끝나자, 하이든 왼쪽에 앉아있던 베토벤이 하이든의 손등에 키스를 하자,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높은 곳에서”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하이든의 나이는 75세였는데, 이것이 청중들이 본 하이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추천음악 : 하이든의 천지창조(한글자막)



백정빈 모니카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교회음악원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에페 4,25)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인간 공동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통신망(Net)은 우리 시대의 자원이며, 한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식과 관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더 잘 알며 서로 도움을 주게 합니다. 다른 한편, 개인과 그 권리들을 마땅히 존중하지 않고, 정치나 경제의 차원에서 이익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대의 그물망을 이룬 공동체(communit )는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경청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공동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긍정적으로 이용되도록 북돋워야 하는 책임과 또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접속의 증대만으로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도 서로를 향한 책임을 깨달아 공동체의 참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인은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에페 4,25)하고 말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는, 우리 정체성이 친교와 ‘서로 다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 원수들마저도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에는 더 이상 적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우는 포용의 눈길은 서로 다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곧 서로 다름이 관계와 친밀함의 필수 요소이자 조건임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개인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이러한 능력은 하느님 위격들 사이에 이루는 사랑의 친교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고자 우리 언

어를 취하시어 역사 안에서 인류와 참되고 고유한 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헌장, 2항 참조)

현재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옹호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친교를 보여 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은 그 자체로 관계이며 만남입니다.

몸과 지체들의 이미지는 소셜 웹의 이용이 몸과 마음, 눈과 눈길과 숨결을 통해 살아 있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만남을 보완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통신망이 그런 만남을 연장시키고 기대할 때, 한 가족이 통신망을 활용하여 더욱 친밀해지고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성찬례를 함께 거행할 때, 통신망을 통해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들의 미덕이나 아픔에 관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재발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을 추구할 때, 통신망은 친교의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진단을 통하여 치유로 나아가는 것, 곧 대화와 만남과 미소와 다정한 표현을 향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움아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친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성찬 친교로 엮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성찬 친교에서는 ‘좋아요’가 아니라 진리, ‘아멘’을 바탕으로 일치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하고 다른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배심원들’ (Juror, 2019)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예레 22,3)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이다. 최초로 배심원이 된 8명은 가정주부, 늦깎이 법대생, 요양보호사, 무명배우, 취업준비생, 청년 창업가와 같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다. 이 배심원들에게 맡겨진 것은 증거, 증언, 자백 모두가 확실해 유죄를 확정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고분고분하던 피고인이 갑자

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의심하지 않았던 사건 기록과 증거에 대한 허술함을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의심이 파고들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간다.

법 앞에 우리는 평등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위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과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 듯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유도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영화에 등장하는 법조인들의 타성에 젖은 왜곡된 판단을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본인의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배심원들 8명의 집단 이성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사의 말을 따르면 쉽게 재판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편함보다는 혹시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 받을 피의자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피의자는 죄인으로 의심받기 이전에 누군가의 효심 깊은 아들이요, 누군가의 자상한 아버지라는 걸 잘 알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마태 25,31-46)에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 이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을 긍정하고 살피는 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은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정의와 구원 계획안에서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마르 4,4).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법의 정의를 왜곡하며 끝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의 행위는 언젠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죄와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 성 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 6월 2일 견진성사(구례 성당)
- 6월 3일 시복헌장조사 법정개정식 평화음악제
- 6월 4일 부산교구 제6대 교구장 착좌식
- 6월 6일 꾸르실로 50주년 기념미사
- 6월 8일 원동 성당 설립70주년 기념미사
- 6월 9일 견진, 사목방문(장덕동 성당)



총대리 주교님 동정

- 6월 2일 견진성사(용봉동 성당)
- 6월 3일 자숙적인 성체조배회 대평 파견미사 평화음악제
- 6월 4일 부산교구 제6대 교구장 착좌식
- 6월 6일 꾸르실로 50주년 기념미사
- 6월 8일 원동 성당 설립70주년 기념미사
- 6월 9일 견진, 사목방문(연동 성당)

사목국

예비신자교리교사대표교사 연수

일시 : 6.22(토) 09:30-16: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대상 : 지구 및 본당
 (부)대표교리교사 · 총무 80명
 참가비 : 1인당 5천 원
 입금계좌 : 농협 60135-51-028961 광주구천주교회
 신청 : 6.14(금)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833

정의 평화위원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6.3(월) 19: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주제 : 트라우마 치유법
 강사 : 김정주(광주트라우마센터)
 문의 : 062-380-2290

성소국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6.8(토) 10:3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대상 : 성소후원회 회원, 예비신학생 · 신학생 부모님
 문의 : 062) 380-2280~1

예비신학생 월모임

일시 : 6.16(주일) 13:30 /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상 : 중1-고2 사제성소자
 문의 : 062) 380-2280~1

청소년사목국

청년 떼제기도

일시 : 6.5(수) 20:0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경당
 문의 : 062) 380-2275

자모회연수

일시 : 6.9(주일) 09:30-15:0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대상 : 초 · 중 · 고등부 자모회
 주제 : 행복한 소통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
 신청 : 6.4(화)까지 그룹웨어
 참가비 : 2만 원 / 문의 : 062) 380-2271~2

레크리에이션 연수

일시 : 6.16(주일) 09:00-16:4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대상 : 초 · 중 · 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
 준비물 : 개인컵, 간편복장, 필기구, 미사준비
 신청 : 6.4(화)까지 그룹웨어
 참가비 : 1인 2만 원 / 문의 : 062) 380-2273~4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06:50-07:00]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오늘의 강론'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 이번 주부터 '월-금' 까지 재방송(16:50-17:00)됩니다.
 6.3(월)-5(수) 류하백 신부(금호동 본당) / 6.6(목)-8(토) 윤장근 신부(하당 본당)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입니다. 홍보주일을 맞아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성원해주시는 교구민들과 후원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 플레이(앱)스토어에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검색해 어플을 내려 받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2. 방송국 SNS(페이스북 · 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페이스북 '친구맺기' : 페이스북-광주가톨릭평화방송on-Air(검색)-좋아요 클릭-완료
- ★ 유튜브 '구독하기' :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검색)-팔간색 구독 버튼클릭-완료
- ★ 시청 가능 코너 : **선교 프로그램** (화요일-최종호 신부의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동물[14:05-25]', 손석준 교수의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14:35-14:50]', 금요일-김계홍 신부의 '새 신자의 눈으로[14:05-14:25]'), **시사 프로그램** (수요일-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의 '톡 쓰는 정치 이야기[17:10-17:3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파아트 도미니)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원서 접수: 6.7(금)까지 / 오디션: 6.8(토) 14:30(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 문의 : 062) 231-7700

St.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문의 : 062) 381-9004

이스라엘(9월) 6.13(목)-21(금) /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수도원 순례(11월) 9.6(금)-16(월)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캘리리 현 책다하기사당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0~5

2019 여름학기(12주) 수강생 모집

[가야금] 기간 : 6.4-8.27(화) 10:00-12:00, 6.13-8.29(목) 19:00-21:00 수강료 : 15만 원
 [민요] 기간 : 6.13-8.29(목) 시간 : 14:00-16:00 수강료 : 15만 원
 [판소리교법] 기간 : 6.7-8.30(금) 시간 : 19:00-21:00 수강료 : 15만 원
 [난타] 기간 : 6.3-8.26(월) 시간 : [초급] 13:30-15:00 / [중급] 15:00-16:30 수강료 : 12만 원
 [전통무] 기간 : 6.5-8.28(수) 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수강료 : 15만 원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 기간 : 6.4-8.27(화) 시간 : 19:00-21:00 수강료 : 1만 원
 [색소폰] 기간 : 6.13-8.29(목) 시간 : [초급] 19:00-20:00 / [중급] 20:00-21:00 수강료 : 12만 원
 [클라리넷] 기간 : 6.13-8.29(목) 시간 : 20:00-22:00 수강료 : 16만 원
 [바이올린 / 그룹] 기간 : 6.13-8.29(목) 시간 : 19:00-20:00 수강료 : 15만 원
 [플루트 / 그룹] 기간 : [평일] 6.5-8.28(수) 10:00-12:00 / 19:00-21:00, [주말] 6.1-8.24(토) 10:00-12:00
 [사진교실-아외출사반] 기간 : 6.1-8.21(격주 토-출사, 수-품평 / 19:00-21:00) 수강료 : 15만 원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 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들'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서목, 병원서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들'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화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자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기관 · 단체

포콜라레 월례모임

일시 : 6.2(주일) 15:00(자산동 172-14)
장소 : 광주 포콜라레(어른, 남아야)
문의 : 062) 222-2800

정경륜 신부의 내가사랑한책이야기

일시 : 6.12(수) 19: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내 바오로딸서원
문의 : 062-528-1004

빈첸시안 양성 후속교육(5차)

일시 : 6.15(토) 10:00-16:3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문의 : 062) 531-5004, 010-8717-5764

주님의숲-살레시오 성소를찾아서

일자 : 6.21(금)-23(주일), 2만 5천 원
장소 : 살레시오수녀회 담양 농장집
대상 : 19-35세 미혼여성
문의 : 010-9749-8127

한반도평화기원미사

일시 : 6.25(화) 11:00(10:00-식전행사)
장소 :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례 : 염수정 추기경
강론 : 김희중 대주교
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참가방법 : 본당별 참가원칙
개인참가신청 문의 : 062) 959-0021
신청마감 : 6.7(금)까지

살레시오영성직업 1일과정

일시 : 6.3(월) 09:30-16:30
장소 : 매월동 살레시오 영성직업
문의 : 062) 373-8712, 010-3866-2248

성체신심 대과정

일시 : 6.3(월) 10:00-16:00
장소 : 임동 주교좌 성당
강사 : 이청준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마산교구)
집전 : 옥현진 시몬 주교
준비물 : 묵주, 미사준비물, 점심
문의 : 010-7310-3070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 1박2일 6.15(토)-16(주일) / 7.6(토)-7(주일)
3박4일 7.11(목)-14(주일) / 7.27(토)-30(화)(청년)
8박9일 6.24(월)-7.2(화) / 8.7(수)-15(목)
40일 9.16(월)-10.25(금) / 12.13(금)-20.1.21(화)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 031) 953-6932, 010-4906-572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기간 : 6.10(월)-13(목)*, 6.16(주일)-19(수)*,
6.22(토)-24(월), 7.1(월)-3(수)
7.6(토)-8(월) (*표시 : 추자도)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 일정 포함)
기간 : 7.19(금)-21(주일), 7.27(토)-30(화),
8.1(목)-4(주일), 8.6(화)-8(목),
8.10(토)-13(화), 8.15(목)-18(주일)
접수 : 02) 773-1463, 064) 756-6009

젊은이 침묵피정(미혼여성)

일시 : 6.15(토) 16:00-16(주일)16:00
장소 : 남평글라넷선교수도회
접수마감 : 6.13(목)19:00까지
문의 : 010-3359-1958

지역사회주민을위한 호스피스교육

기간 : 6.26(수)-27(목) 09:00-17:00
장소 : 성가롤로병원 4층 성심홀
문의 : 10amor@hanmail.net 061) 720-6070

2019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일자 : 7.20(토)-8.18(주일), 4주
장소 :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 초4-중2(모집인원 50명) / 비용 : 320만 원
블로그 : blog.naver.com/cficengcamp
문의 : 031) 207-4982, 010-4442-4982

33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장소 : 캐나다, 필리핀
대상 :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 국제교류팀 070-4365-7297

수 도 회

예수회 월례특강(무료, 미사봉헌)

일시 : 6.6(목) 14:00-17:00
장소 : 예수회 성당 소성당
주제 : 보시니 참 좋았다(구동욱 신부)
문의 : 010-9884-9988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6.8(토) 15:30
장소 :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문의 : vocation.jesuits.kr 010-3324-0731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6.22(토) 15:30
장소 :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문의 : vocation.jesuits.kr 010-3324-0731

살레시오회 광주 성소모임

일자 : 6.22(토)-23(주일)
장소 : 북구 자미로42 살레시오수도원
문의 : 010-5159-3949

골롬반 평신도선교사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 6.9(주일) 14:00-17:00
장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대상 : 만 23세-38세 남녀
문의 : www.columban.or.kr 02) 929-48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선교체험(대만)

일시 : 8.1(목)-6(화) 5박6일
대상 : 만19세-35세, 청년남녀 15명
경비 : 100만 원(항공료포함)
문의 : 02) 953-0613 / 마감 : 6월 중순

예수고난화청소년지도강사 양성교육

기간 : 7.27(토) 14:00-28(주일) 15:00
주제 : 놀자(놀이면서자기찾기)과정1차
대상 : 교리교사, 청소년지도자, 교사
장소 : 일곡동 명상의집
문의 및 신청 : 062) 571-5004(32명 선착순 무료)

본당 · 모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배송직원 모집

근무 : 서구 쌍촌동(주5일, 토요일 격주)
접수 : ccfm062@nate.com
1층 보통면허,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 062) 373-6185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일시 : 6.8(토) 10:30
장소 : 북동 성당
집전 : 윤영남 시몬 신부
문의 : 062) 380-2210~5

상설고해소(평생교육원 성당)

운영시간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문의 : 062) 380-2210~5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빛고를 주보’ 의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처 홍보 062) 380-281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3주년 기념 「평화음악제」

그동안 광주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평화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일시 : 6.3(월) 19:30

장소 :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중홀

출연 : 생활성가 가수 박명선, 계만석, 그룹 하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소년합창단
가수 자전가탄봉경

※ 당일 18:00 이후 도착하신 초대권을 좌석권으로 교환해드립니다(선착순).